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Global Issue Paper

2014. 12. 19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TEL 02-3460-7314 FAX 02 3460 7777

'글로벌 이슈 페이퍼' 정보는 전 세계 124개 무역관에서 오는 실물 경제정보를 취합 분석하고 현안 이슈가 발생한 해외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우리나라 무역 투자 활동 지원을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이슈 요약

러, 루블화 가치 폭락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 루블화 가치가 '98년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사상 최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러시아 경제와 對러 수출 전선에 적신호가 들어오고 있음.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의 경제제재조치, 러시아 국내 경기침체, 유가하락 등이 주요 원인으로 당분간 이 같은 하락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루블화 폭락에 따라 러시아 경제성장률은 2014년을 포함, 향후 2~3년간 0%대로 예측되며, 특히 상당수 현지 바이어들이 2015년 상반기를 러시아 경제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 중 하나로 꼽음으로써, 對러 수출과 현지 진출 기업들의 영업 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

○ 이에 올해 對러 수출은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한국산 취급 바이어들이 환율 쇼크에 대한 타개 방안으로 신규거래 보류, 현지 생산품이나 중국산으로 거래선 변경 등을 고려하는 바, 2015년 對러 수출 여건은 더욱 어려울 전망. 현지 투자진출 기업들도 영업이익률 감소로 제품 생산량 및 가격 조정, 사업구조조정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현재로서는 지속적인 현지 모니터링과, 신규 바이어와 외상거래 자제, 기존 바이어와 거래시기, 결제통화 등 거래조건 재조정 등으로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것이 최선임. 아울러 KOTRA에서는 **<러시아 경제위기 비상대책반>**을 운영하여 러시아 경제위기 일일동향을 전파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 및 대응 예정

러, 루블화 가치 폭락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1. 루블화 가치 폭락 추이 및 원인

□ 추이

○ 2014년 12월 18일 현재 美달러당 67.78루블로 2013년 평균 환율(31.84루블) 대비 약 2.1배 상승. 이는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이후 루블화 가치 최저치 기록임 * (비교) '98년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 1.5개월 만에 약 2.6배 상승 ('98. 8.15기준 1$=6.29루블 → 9월 말 기준 1$=16.065루블)

<최근 10년간 달러-루블 환율 변동 추이(단위 : 루블)>



(자료원: 러시아 중앙은행)

□ 원인

○ **(자금유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의 경제제재조치, 러시아 국내 경기침체, 유가하락 등으로 외국인 자본은 연초부터 꾸준히 순유출을 기록, 루블화 폭락을 주도

- 2014년 자본순유출액 약 1,200억 달러, 3분기 순유출액은 약 850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93% 증가

○ **(유가하락)** 국제유가는 12월 들어서도 하락세 지속, 2014년 6월 고점대비 약 45%가 하락한 상황. 더욱이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OPEC의 감산 실패가 맞물려 최대 40달러까지 하락할 전망이며, 에너지수출국인 러시아 루블화 가치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

□ 러시아 정부 금융관련 조치

○ 러시아 정부는 환투기 및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변동환율제 조기도입, 기준금리 대폭인상** 등의 조치를 실시

[참고] 러 중앙은행 금융시장 관련 조치

○ **(바스켓 제도 폐지)** 러시아 중앙은행은 11월 10일 성명을 통해 **더블 바스켓 제도**와 외환시장에 대한**정책적인 시장 개입 정책 폐기를** 발표. 이는 당초 2015년 1월로 예정되었던 완전자율 **변동환율제의 조기 도입**에 해당

* 직전까지 러시아 중앙은행은 달러화와 유로화에 연동하여 최대 변동폭을 제한하고, 일정한 변동이 있을 때마다 시장 개입을 하여 환율을 방어하는 정책을 유지

- 이와 같은 조치 배경에는 재정수입의 50%를 차지하는 국제 에너지 가격(천연가스 및 원유)하락 및 외환보유고 소진에 따른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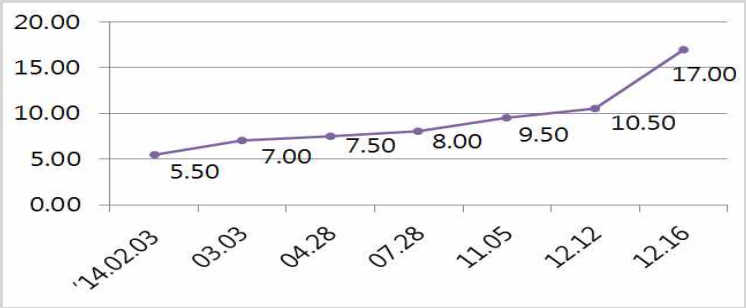
* 국제유가(브렌트산)는 배럴당 107달러('14. 4.10)에서 62달러('14. 12.16)로 약 42% 감소

* 러시아 외환보유고는 연초 5,100억 달러에서 4,190억 달러(12월 초)로 약 17.8% 감소

○ **(기준금리 대폭 인상)** 아울러 중앙은행은 대규모 자금이탈을 막고 루블화 가치 급락과 인플레이션 압력(9.4% 12.15. 러시아 통계청)에 대한 방어 조치로 12월 16일 기준금리를 기존의 10.5%에서 17%로 대폭 인상

* 지난 3월 크림반도 합병 이후 자본 유출 방지를 위해 1.5% 포인트 인상한 이후, 여섯 번째 인상조치 (연초 대비 11.5% 포인트 상승)

<2014년 러시아 기준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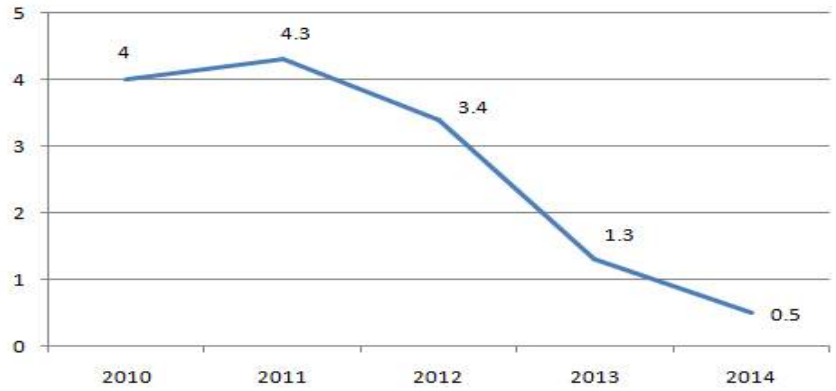
(자료원: 러시아 중앙은행)

2. 러시아 경제 및 한-러 교역 동향

□ 러시아 경제 동향

○ 러시아 경제성장률은 2011년 4.3%이후 유럽 경기침체, 경제제재, 유가하락 등의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하락, 2014년 현재 0%~0.5%로 예측

<러시아 연도별 경제 성장률 추이(단위 : %)>



(자료원 : 러시아연방통계청, *2014년은 경제개발부 전망치)

○ 아울러, 세계은행은 러시아 경제성장률을 '15년 -0.7%, '16년 0.3%로 전망('14.12.5), 2014년을 포함하여 향후 2~3년은 0%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한-러 교역 동향

○ **對러 수출 감소, 무역수지 적자 심화**

- '14.1월~11월까지 대러 수출은 96.5억 달러를 기록, 지난해 동기 대비 3.5% 하락. 무역수지도 49.8억 달러 적자 기록

<한·러 연도별 교역 현황 (단위 : 억불, 전년동기대비 %)> (자료원 : KOTIS)

구분		'08	'09	'10	'11	'12	'13	'13.1~11월	'14.1~11월
수출	금액	97.5	41.9	77.6	103.1	111.0	111.5	102.5	96.5
	증가율	20.5	-57.0	85.0	32.8	7.7	0.5	-0.4	-3.5
수입	금액	83.4	57.9	99.0	108.5	113.5	115.0	103.6	146.3
	증가율	19.5	-30.6	71.0	9.6	4.6	1.2	0.8	-0.3
무역수지		14.1	-15.9	-21.4	-5.5	-2.6	-3.5	-1.0	-49.8

- 주요 품목별로는 승용차(22.0억 달러, -20.5%), 합성수지(3.8억 달러, -15.2%), 건설중장비(2.8억 달러, -37.1%), 화물자동차(2.1억 달러, -29.5%) 등의 수출이 크게 감소('14.1월~10월 기준)

3.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현지 진출 기업 동향

□ 對러시아 수출 여건 악화

○ 금번 사태에 따라 한국 제품을 주로 수입하는 주요 바이어 10개사에 대해 향후 달러 대비 루블화 예상 환율 및 러시아 경제전망, 한국산 제품 수입 계획을 문의

- 인터뷰 바이어 대다수가 달러당 100루블 정도까지 하락을 예상하고 있으며, 2015년 초반이후 러시아 경제가 본격적인 침체를 맞을 것으로 전망
- 한국산 전문 수입상들도 제품 오더 축소 혹은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있는 중국 또는 현지 공급선으로 변경 계획 중이며 2015년 초반부터 본격 진행될 전망

○ 환율 전망 불안정으로 기존 거래처 바이어들이 환율 안정시까지 재고를 소진하면서 수입을 최대한 지연하고 있어 신규 성약 발생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 영업이익률 감소로 투자진출기업의 우려 증폭

○ 현지 투자 진출기업은 직접적으로는 루블화 폭락에 따른 영업이익률 감소 및 미수금 회수불가 상황과 함께, 동 사태로 인한 러시아의 자본유출 통제, 은행 파산 등에 대하여 우려 중인 상황

* '14.9월 까지 러시아 투자진출 기업 수 491개, 누적투자금액 21억 달러

- 현재까지는 재고물량 소진 등으로 감내한다하더라도, 2015년부터는 수요 감소 및 현지 경제침체로 인해, 최악의 경우, 지사 철수 등과 같은 사태도 벌어질 가능성이 있음

□ 원자재 구입비용 및 완제품 수입가 상승

○ 현지 진출 자동차 및 가전업체의 경우 현지생산제품의 일부 부품은 한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환율상승 움직임과 함께 원자재 구입비용 상승으로 인한 연내 지속적 가격인상 압박이 불가피함

* 해당품목 : 자동차, TV, 냉장고, 세탁기 등

○ 현지진출 업체의 경우 자체 생산하지 않는 제품은 한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달러 대비 루블 가치가 하락하여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임

* 해당품목 : 의료용품, 자동차(일부모델), 핸드폰, 오디오, 청소기, 전자렌지 등
* 러시아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도 동일한 입장이며, 현지 BMW, iphone 등의 경우 배송지연 및 판매가와 구매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판매를 중지하기도 함

□ 특혜관세 철회 등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

○ 자동차 현지진출기업의 경우 부품 현지화율을 단계별 특정비율 이상 충족하는 조건으로 특혜관세 적용을 받아 왔으나, 수입부품의 루블화 환산비용이 증가하면서 최고 32%까지 관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2015년 기준 자동차OEM 현지화율 30%, 부품업체 30%-45% 달성 필요

○ 이는 제품의 가격경쟁력 저하, 시장점유율 및 매출 감소, 생산시설 확장 및 유지보수 계획 보류로 인한 국내 기업의 장비수출 및 공사 프로젝트 수주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 인건비 등 각종 부대비용 상승 및 한국인 인력수급 차질

○ 공산품의 경우 오프라인 매장 및 온라인 숍의 가격표가 수시로 변경되고 있음. 내년 초부터 주택임차료 및 급여 인상 요구가 본격화되고, 달러 환산 급여 하락으로 인해 한국인 및 CIS 지역 유입인력 현지채용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참고] 루블화 사태 관련 현지진출기업 대응 동향

ㅇ 대금송금 보류 중

- 루블화 약세 상황에서 수익금을 본사로 송금할 경우, 환율차에 의해 손실이 현실화되기 때문에 환율이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현지 은행에 예치하는 등, 송금을 보류하고 있음

ㅇ 제품가격 인상 계획

- 현지에서 생산 및 판매하는 제품들은 소매가격을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품목별로 차이는 있으나, 자동차와 가전 같은 대표 소비재 품목은 평균 10~15%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ㅇ 사업구조 조정 계획

- 경기 전망이 당분간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신규투자 및 증설계획은 대부분 보류하고 있음. 투자기업의 설비 수요가 줄어 현지에 진출한 물류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음
-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부서 통폐합을 통해 현지직원 및 주재 직원을 재배치 또는 감축할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 철수를 고려하고 있는 주재 기업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

4. 대응방안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리스크 최소화 필요

○ 지속적인 환율 모니터링을 통해 거래바이어와 가격조건 협의 및 거래 시기 등에 대해 면밀한 재조정이 필요한 시기임

○ 자본 유출 통제, 은행 파산 등의 징후가 보일 시, 이에 대한 자체적인 대책을 미리 마련해둘 필요가 있음

□ 바이어 부도에 대비한 결제 조건 관리 필요

○ 오랜 기간 거래를 해오면서 신용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거나, 관리 유지가 필요한 바이어에 대해서는 주문 물량을 최소화하고 신규 주문건은 외상 거래를 최대한 자제하는 방향으로 대응

□ 루블화 대비 환율 변동 폭이 적은 결제통화로 변경

○ 홍콩달러화, 위안화 등으로 결제통화 변경

- 환율 하락 시점인 3분기 무렵부터 국내 수출기업들이 일부 바이어들에게 많이 요청받은 방식인 루블화 대비 비교적 환율 변동 폭이 적은 홍콩달러화 등으로 결제통화를 변경하는 것도 방법임

□ KOTRA, <러시아 경제위기 비상대책반> 운영

○ KOTRA는 **<러시아 경제위기 비상대책반>을 운영**하여 對러 수출 및 투자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 및 긴급대응 예정. 끝.

※작성자: 차윤희 과장(신흥시장팀), 정보람 과장(상트페테르부르크무역관),
오기찬 과장(모스크바무역관), 우상문 과장(블라디보스톡무역관)